시 이승휘

늦반딧불이의 사랑

흑암의 세계 극복 후 나를 옳게 인지하려 다가온 너
여섯 벌의 옷을 벗고 새옷 갈아입으며, 수많은 달팽이 먹고 자라는 동안

너와 나 속임수 없이 자연에서 받아들인 생명의 힘
안에서 용트림하고 준동하니 새로운 광명의 근원

번듯한 날개조차 갖추지 못한 날 만나려, 이태를 천년같이 견디며 기다린 너
나 비록 날지 못하나 전하는 빛과 내음은, 집안의 대를 이으려는 간절한 소망

힘을 바꿔 빛으로 베풂에 배우자 되고자 화답한 너는 내게 남은 하나의 소망과 희열
너와 나 함께하며 얻는 사랑의 결실은 탈 없이 대를 이어가는 것

돌아보니 너와 나의 만남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
가없는 축복이요 자랑스런 늦반딧불이의 아름다운 삶이리

약력



▲문학예술 시, 수필 등단
▲한국문학예술가협회 광주지회 회원
▲광주문학인산악회 회원
▲한국멸종위기동식물보호협회 광주지부 대표, 자문위원
▲이학박사, 호남대학교 교수(1990-2024)

시 공정염

첫눈 내린 날

냉혹한 계절 왜 이리 보고 싶은지
이 순간 생각나는 어머니
그 천상에 잘 있지요
하얀 소금 뿌리듯 날리는 눈에
젖고 있을 영혼에 꽃

인기척 없이 깊어지는 요즘
많이 춥지요
코트에 몰려온 찬 기운이라도
이 큰딸이 꼭 안아 주고 싶습니다

나목에 위태롭게 붙어 있는
저 외로운 잎 하나
사르르 부는 바람에도
힘들어 버티지 못한 채

호흡 시들고 향기까지 메마른 꽃
요양원 침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떠나는 기차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손 흔들어 떠나보냈다면 좋았을걸

뒤늦은 후회가 오늘따라 두 줄기 눈물
고드름 되니 많이 춥습니다.
어머니.

약력



▲모산문학상 수상
▲광주문인협회 이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시 강명숙

물수제비의 자세

날지 못한 것들의 방식을 다시 배운다

손바닥 위에서 식어 있던
수제비 같은 돌 하나

던져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새의 이름을 얻는다

물은 날개처럼 열리고
짧게, 또는 스타카토로 몸을 떠받친다

수면 위에 남는 빛

더 멀리 가기 위해

몇 번이고 낮아지는 몸짓

세 번째에서야 새는 날개를 쫙 편다

헛디딘 손목에서 놓쳐버린 궤적들
물 위에 잠시 번졌다가 곧 사라진다

읽히지 못한 흔적들
몇 번에야 나는 닿을 수 있을까

손을 떠나는 순간마다
나는 알게 된다

던지는 방식에 대하여

뜨겁게 닿았다가
곧 식어버리는 파문 위에서
돌이 새가 되듯
내 몸도 물 위를 스치며 날아간다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저, 새 한 마리

약력



▲열린시학 등단
▲전남작가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
▲수상 : 통일문예공모 대상, 매일신문 시니어문학상

수필 박종철

인류, 새로운 가치는 오고 있는가?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시대로 이어지는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배우면서 살아왔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막판에 도달한 듯하다. 이제 변화하는 세대를 갈망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인류에게 닥친 과제는 '생각하며 존재하는 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한 변혁 또는 발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들 한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관측 천문학자이다. 논의에만 전념하는 스콜라학파의 학통과는 구별되는 궤도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성질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출현으로 암흑기에서 광명의 등불을 켜게 돼, 과학혁명으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꾸어 봄으로써, 푸르른 대지와 높은 산과 넓은 바다와 태양빛과 바람을 지닌, 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천명했는데, 이것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던 당시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체계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은 그 위에 사는 존귀한 존재이며 달 위의 천상계는 영원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중세의 우주관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주를 인간중심의 지구중심설에서 객관적인 입장의 태양중심설로의 발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부르며, 대담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이르는 말로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망원경으로 달을 처음 관측한 1609년, 우리나라는 광해군이 처음 왕이 된 해로, 강원도 지역 간성, 원주, 강릉, 춘천, 양양에서 UFO사건이 발생하였다. 동시다발적으로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났는데, 광해군일기에 실린 공식기록이다. "붉은 천 같은 물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며 천둥소리를 냈다. 세숫대야처럼 둥글고 세 가지 색이었다. 동쪽은 희고, 가운데는 푸르고, 서쪽은 붉었다"고 적혀있으니, 단순한 소문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중세의 어둠을 뚫은 두 실천가는 갈릴레오와 부르노이다. 갈릴레오는 1609년 처음으로 천체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으로, 렌즈를 두 겹 겹쳐서 풍향계가 커다랗게 보이는 것을 발견해 '물체가 크게 보이는 것에 대해'라는 글을 쓰게 됐고, 항상 머릿속에 하늘에 대한 연구로 가득 차 있던 갈릴레오는 이것을 응용해 천체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보게 됐다. 하늘을 보니 그동안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은하수는 구름이 아니고, 무수한 별이 모여서 있는 것이고, 토성에는 테가 있으며 목성은 4개의 큰 위성이 돌고 있고, 태양에 흑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로써 우주가 확장되었고, 세상이 놀라게 되었다.

당시에 이 사실을 발설한 갈릴레오는 나중에 부정했다. 반면에, 부르노는 파문을 당했는데 당시 구교뿐만이 아니라 루터를 비롯한 신교의 각 교파의 대표들도 부르노의 주장을 사악하다고 해 모두 파문을 처했었다.

철학과 과학은 진리의 발견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전문용어로는 '태양중심설'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동설'이라고 알려진,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고 있다는 설을 주장하여 재판에 회부 되었다. 사형에까지 처해 지게 된 갈릴레오는 그 말을 번복하면 살려주겠다는 재판관의 제의를 받아들여 사형을 면하고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조르다노 부르노(Giordano Bruno)는 갈릴레오와 똑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거절하고 화형을 당했다. 자기의 확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다 화형을 당한 것이다. 갈릴레오는 신념에 대해 번복하였다. 갈릴레오는 과학자로서, "내가 주장을 철회한다고 해서 지구가 돌지 않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 사실에 대해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연과학자 갈릴레오의 입장이고, 부르노는 "이는 분명하게 내가 인지하고 신뢰하는 사실에 대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철학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고 생명을 구해 나올지라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일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건의 입장차에서 자연과학과 인문철학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 갈릴레오는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했고, 브루노가 중요시했던 것은 "지구가 도는가 돌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자기의 확신, 확실한 자기의 주장이 있음에도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과학은 객관적이며, 가설적이며, 전제를 필요로 하며 경험적 사실을 적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연현상, 인문 사회 현상의 정확한 모습 및 관계를 밝히지만 철학은 전제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주관적 개념까지도 가미된 물질, 생명, 원인과 결과, 규칙성이 있는가 등의 근본 전제까지도 탐구한다. 과학은 가치와 당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때로는 가치적 중립을 띠어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철학은 초월적 세계를 인식하려는 학문이며 과학의 토대를 비판적 시각에서 과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철학자이자 천주교 수사였던 부르노와 천체관측가이자 자연과학자인 갈릴레오는 중세 암흑기를 밝힌 횃불이었다.

AI, 컴퓨터, 핸드폰이 막강하게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과거사를 살피고, 새로운 미래사를 생각하여,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인간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자만이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약력



▲국제교류 문학예술 협의회 본부장
▲천문학 박사, 시인, 수필가
▲박종철의 날 선포(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
▲광주 파크 천문대 천문대장
▲조선대 과학교육과 겸임교수 역임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